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본 문 창세기 2장 7-9절, 15-17절

참 고 창세기 2-3장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달에 새로 오신 분들과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을 축하해 주며 말씀해 주는 주일에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모르고 행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 온 자들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자들도 이 말씀을 절대 알고, 알았으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못 이루니, 하나님께도 자신에게도 영원한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해도 처음 온 사람들도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1>

한 황태자가 있었습니다. 이 황태자는 궁에서 내신들이 시중을 들면서 사랑해 주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택하고 만들어 혈연관계를 맺어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고로 한 여자를 택

해 기르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태자가 이 같은 계획을 처음으로 세우자, 한 신하가 사랑의 감수성을 느껴 끝까지 황태자의 일을 반대했습니다. 고로 황태자는 그 신하를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황태자는 한 여자를 택하여 어릴 때부터 길렀습니다. 여자가 14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여자를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황태자다. 누가 너를 사랑해도 사랑하지 말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말고, 네 몸을 누구에게도 내주지 말아라. 다른 자에게 네 몸을 내주고 사랑하면, 나와 사랑이 끊어지고 죽는다. 내 말을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했습니다.

이 황태자의 여자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길러서 왕비로 삼으려고 하는 것 하나입니다. 여자가 사는 위치인 시골에서 먼저 성숙하게 성장할 때까지 배우고 크게 하며, 그동안 황태자를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크면, 궁에 데려다가 결혼하여 실제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황태자가 하는 일을 반대하다가 궁에서 쫓겨난 역적 신하는 궁에서 쫓겨나고도 계속 사랑의 감수성을 탔습니다. 고로 황태자가 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황태자는 필 수 없으니, 황태자가 택한 여자를 꾀고 유혹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찾아가 말하기를 “황태자가 그 말을 어기면 죽는다고 했어도 안 죽어. 다른 자와 사랑하면 더 잘된다. 그러니 나와 사랑하자. 황태자가 너를 속인 거야.” 했습니다. 여자는 절대적으로 황태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궁에서 쫓겨난 신하의 꾀를 받았습니다. 이에 여자는 그와 사랑했습니다.

황태자가 이 사실을 알고 여자에게 쫓아갔습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어기고 그와 사랑했느냐. 고로 네가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그가 나를 꾀니, 내가 참지 못하고 그리했습니다.” 했습니다. 누가 어떤 유혹을 해도 여자가 황태자가 한 말을 절대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잊고 꾀에 빠진 것입니다.

황태자는 그 여자와 궁에서 쫓겨난 역적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너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자에게 주어 죽게 되었느냐. 내 말을 어겼으니 네가 있는 처소에서도 쫓겨나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되리라. 내가 택한 자를 뵈 역적아, 너는 영원히 감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백성들이 너를 미워하리라.” 했습니다. <영상1 끝>

비유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잘 생각하며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땅에 사랑의 대상체를 창조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의 근본체이신 하나님은 자녀 입장이고 형제 입장인 천사들과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루시엘을 지상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녕코 뜻을 행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한 시간인 약 130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와 문명을 키워 오시고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구와 인간이 아름답게 형성되게 창조하고 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드디어 이 땅에 구원역사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사랑의 대상체로 삼으려 하는데, 여자가 아기 때는 젖을 먹고 기어 다니니 사랑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류가 성장되기 전에는 땅에 뜻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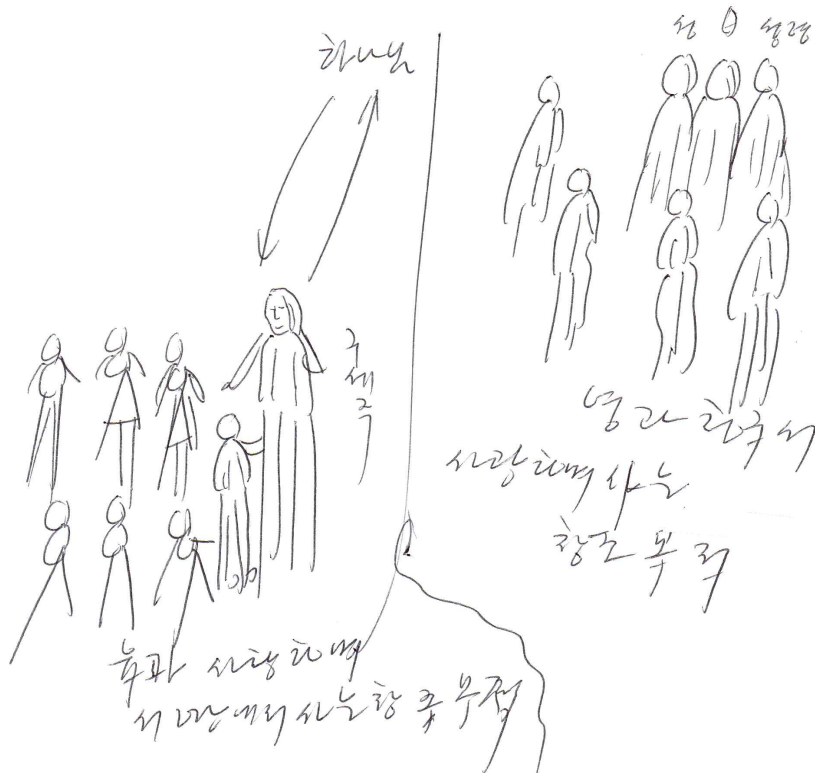
다. 지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문명이 발달되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성장하니, 그때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시려고 본격적으로 손을 대고 기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중심이 되는 곳과 중심이 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펴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에 그 시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14~16세 정도까지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쫓겨난 천사장 루시엘은 계속해서 사랑의 소외감을 타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못 먹게 한 것이다. 먹자. 사랑하자.” 했습니다. 이에 하와가 먼저 마음으로 타락하고, 이어 아담을 꺾어 아담과 하와는 육도 서로 타락했습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루시퍼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갇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황태자 비유를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며 그것을 절대 기뻐하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그같이 사랑하여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참사랑의 근본체인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육도 마음도 영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육적 창조 목적’입니다. / 그 육의 행위와 삶에 따라 그 영도 그대로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는 것이 ‘영적 창조 목적’입니다. /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영상2 끝>



이것을 알고 행하며 살지 못하면, 성삼위께서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사랑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의 삶 역시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와 허탈과 곤고함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서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둘 다 외롭게 살다가 끝나는 격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존재의 목적만을 위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같이 살면 아무리 인간 차원의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육적인 것에서 일순간 끝나고 허무, 공허, 허탈, 곤고로 끝나고, 아담과 하와같이 형벌의 세상에서 삽니다. 그 영도 육신을 따라 그대로 형성되어 허무한 영의 세계인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가고 끝납니다.

전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3>

<성자의 말씀>

너희 신앙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삼위일체의 말을 듣고 성장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성장한 후에 하늘이 맺어 준 대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절대 창조자를 사랑하며 살았다면, 땅에서도 사랑의 천국을 이루며 그 육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그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삼위와 참된 사랑을 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때부터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이뤘을 것이다.

그러나 전능한 삼위일체가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여 삼위의 절대 사랑의 대상체를 만든다고 하니, 천사 중의 루시엘은 이를 반대하며 “우리가 있는데 또 사랑의 대상체를 만들 필요가 있나이까.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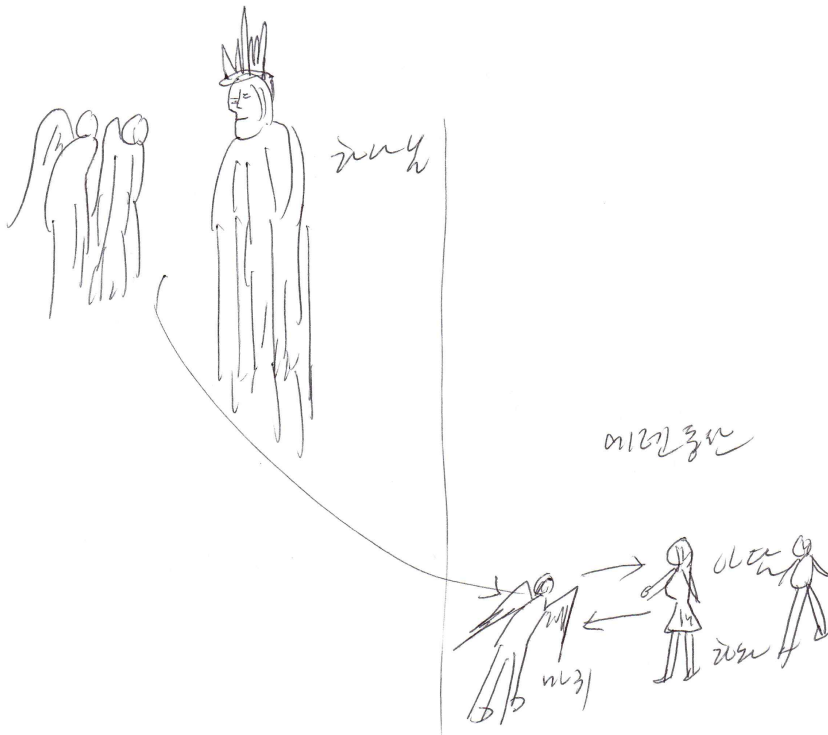
그러나 하늘나라의 천인들과 천사들은 한 집안의 자녀 입장이며, 한 형제와 같은 입장이다. 고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상대적 사랑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하나님은 영의 세계 천국의 상대 세계인 육의 세계 지구를 창조하시고, 상대체인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다. 너희가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또는 자매 사이에 상대적 사랑을 못하지 않느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전능자 삼위일체는 자녀급 사랑에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는 사랑의 근본체다. 고로 사랑의 대상체를 통해서 근본적인 사랑을 받아야 만족하며 사랑의 영원한 뜻을 이룬다. 천사들은 전능자의 사랑에 만족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는 자녀급 사랑인 천사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제 모두 삼위의 심정을 깨닫고, 삼위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깨달았느냐. 사람도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니, 육적인 상대적 사랑을 찾지 않느냐. 삼위도 그와 같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는 땅에서 육으로도 창조 목적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으로도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넣어서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했다. 그런데 최초의 구원역사 때, 아담과 하와는 삼위의 말을 거역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영적 원수이자 불신자인 루시퍼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말았다. 고로 뜻이 깨졌다. 긴긴 세월 동안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고 길러 왔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깨져 버린 것이다. 고로 아담과 하와는 당세에도 형벌을 받았고, 그 자손도 하나님께서 땅에 다시 메시아를 보내실 때까지 4000년 동안 종급으로 떨어져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그리고 루시퍼는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었다. <영상4 끝>



전능자의 말씀을 불신한 아담과 하와의 영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망하지 않았겠느냐. 너희도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 때와 같이 타락함으로 형벌을 받는 때를 맞아 살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주와 지구와 너희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창조자를 위해 드리고, 너희 육과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아야 한다.

타락하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세상이며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당세에도 형벌을 받았고, 후손들도 4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다. 그 형벌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다시 땅에 구세주를 보내셨다. 너희도 하나님의 역적 마귀가 인간을 통해 썬 말을 듣고 행함으로 타락하면 사탄과 같은 역적이 되어 아담과 하와같이 당세에도 형벌을 받고, 후손들도 형벌을 받는다. 너희 육도 영도 사망으로 가게 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4000년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하늘의 독생자 격인 나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에게 나 성자가 임하여 아들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아담이 못 했던 것을 행하며 아들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1차로 무너진 구약역사를 일으키는 신약역사를 2000년 동안 펴 나갔다. ‘아들 차원의 사랑의 창조 목적’ <영상5 끝>



이때도 사탄은 무지한 인간들을 통해 땅의 구세주인 나사렛 예수를 악평하고 핍박하고 죽였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펼 때 마다 하늘 역사의 역적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막았다. / 이 시

대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악평하다가 쫓겨난 변질된 천사들인 사탄들이 새 역사를 방해하고 이단시하고 악평하고 막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무리를 지어 진리와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사탄과 싸워 이겨라.

신약 때는 나 성자와 아들의 몸인 나사렛 예수가 악한 시대를 위해 조건을 세워 주고 구약을 일으키며 신약 2000년 동안 아들급으로 새 역사를 폈다. 성부, 성자, 성령이 2000년 동안 아들급 창조 목적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계획적으로 신약 역사를 끝냈다. /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나 성자가 본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 했으나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려고 다시 땅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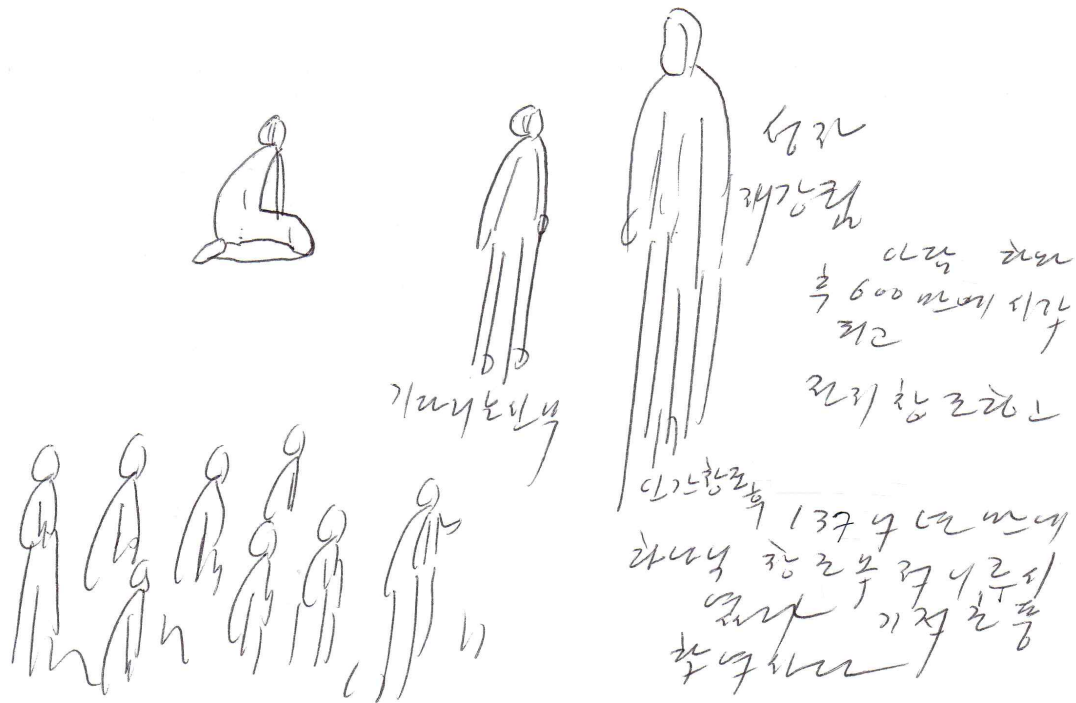
<설교자 참고>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 지금부터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더욱 집중하여 잘 듣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6>**

무너진 구약을 일으킨 신약 역사를 완성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근본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려면, 전능자인 나 성자는 신이니, 땅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 상태같이 이성으로 타락하지 않고 창조자 삼위일체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있어야 나 성자가 그를 나의 육신으로 쓰고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겠느냐.

고로 이 시대에 나의 택함을 받고 나의 분체가 된 자는 육의 세계에서 흠이 없이 합당한 자다. 창조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를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절대 사랑하듯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여 삼위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 신부로서 사는 자다.

땅에서 조건이 되니, 나 성자가 그를 통해 다시 와서 본래 창조 목적을 다시 시작하여 구원역사 6000년 만에 이 땅에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삼위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고 약 137억 년 만에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다. 기절초풍할 역사다.



나의 분체 신부의 몸을 통해 오늘도 이 말씀을 주어 단상에 선 사명자들을 통해 나 성자가 함께 전하고 있다.

나 성자는 나의 분체를 통해 이 시대에 신부급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창조자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그 ‘육신’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룬다. 그에 따라 영도 자기 육신을 쓰고 신부로 변화되며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산다. 이것이 <육신 휴거>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주의 주인 나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것이 땅에서 하는 육신 휴거가 아니냐.

그러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고 나 성자 본체의 영이 재림할 때, 완전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랑으로 삼위의 신부가 되어 산 육신을 따라 완전한 신부가 된 영은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고, 그 후에는 영원히 창조자와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찬란한 보화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된다.

‘육신’이 땅에서 나 성자의 신부가 되어 나의 분체와 함께 나를 사랑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경에 나온 ‘기다린 휴

거’ 다. 이 시대 섭리역사로 온 너희들은 지구라는 공중에서 나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육신 휴거를 하며 살고 있다. <영상6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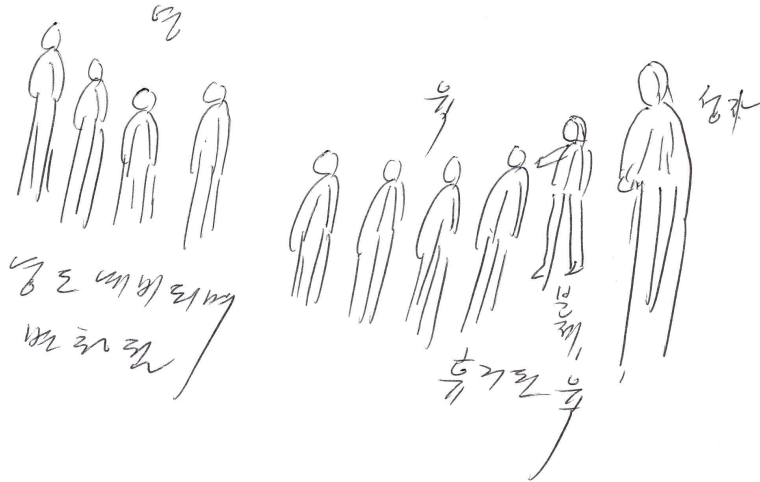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구약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쓰지 못하며 4000년 동안 종급에서 형벌을 받으며 살았다. 신약 때 하나님은 나 성자를 보내시고, 땅의 메시아를 보내어 아들급으로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무너진 구약역사를 일으켜 세운 신약역사였다.

때가 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약역사 재림 때부터는 창조주가 근본적으로 이루려던 신부급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다. 일으켜 세운 신약역사를 완성시키는 성약역사다.

지금 이 시대는 육신을 중심하여 <육적 휴거 기간>을 보내며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진행하고 있다. 너희는 이를 확실히 알고, 시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희 ‘몸’과 ‘사랑’을 전능자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 너희 ‘몸’과 ‘사랑’을 하나님의 천적 사탄과, 사탄들이 쓰는 자들을 위해 쓰지 말아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사랑을 다 쏟으면서 그 남자만을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듯이, 너희 ‘몸’과 ‘사랑’을 창조주를 향해서 쓰면서 살아라. 그리고 신랑인 나 성자를 진정 사랑하며 내가 보낸 시대 구원자를 통해 주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육신 휴거를 이룬다. 육신 휴거 기간에 그 영을 완전한 나의 신부로 단장했으면, 나 성자 본체의 재림 때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지금은 마지막 ‘영 휴거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 성자를 절대 사랑하며 창조 목적을 이룬 자의 영은 천국으로 가고, 못 이룬 자의 영은 그 육신의 행위대로 영이 그만큼만 형성되어 낙원이나 선영계로 가게 되고, 음부나 무저갱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영상7 끝>



★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성자가 너희를 구원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 성자의 분체를 이 시대에 보냈다. 너희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너희 ‘육’ 과 ‘사랑’ 을 자신의 존재 목적을 위해 쓰지 말고, 영원한 세계와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 그리함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할 때 약 137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 인간을 창조한 삼위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라.

★ 지금 이 시대에 137억 년 만에 근본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일이나. 고로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영은 천국에 데려가 금과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빌딩도 주고 집도 주고, 하나님과 나 성자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한다. 세상 사랑은 타락의 사랑이며, 일순간이다. 창조자의 목적대로 사랑을 못 쓰니, 사탄의 뜻으로 쓰인다. 너희 ‘몸’ 도 ‘사랑’ 도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시대 말씀을 들어라. 시대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모두 알았을 것이다. 또한 이때가 근본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시대이며, 마지막 시대에서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때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육도 휴거시키고, 그에 따라 영도 온전한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너희가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너희의 ‘몸’ 과 ‘사랑’ 을 오직 창조 목적대로 써야 한다. 육은 세상에서 살 동안 땅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랑하며 살고, 영은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것을 못 하면 곤고한 사랑, 타락의 사랑, 죄악의 사랑, 사탄과의 사랑을 하게 된다. 또한 아담과 하와같이 그 사랑으로 형벌을 받아서 자기도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자손들도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창조 목적

을 이루지 못한 자의 영은 하늘 역사의 최고 반역자인 사탄이 가는 그 지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실상 하루도 못 사는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나 성자가 영계의 사명자들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느냐. <영상8 끝>

<★ 매듭 : 여기서부터 끝까지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 말씀>

★ 천지와 인간의 창조 목적은 ‘사랑’ 이다. 이 사랑을 통해서 삼위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는 사망의 영이 되어 영원히 사망에서 살아야 된다. 이 목적을 이룬 자는 휴거의 영이 되어 찬란한 사랑의 세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 지금 너희는 마지막 기회의 때에 살고 있다. 너희 영의 휴거를 위해 마지막으로 완전히 할 기회의 때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면 소용없고,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면 소용없다. 하나님과 나 성자를 믿기만 해도 소용없다. 창조 목적을 알고 뜻을 이루며, 자기 영을 완전히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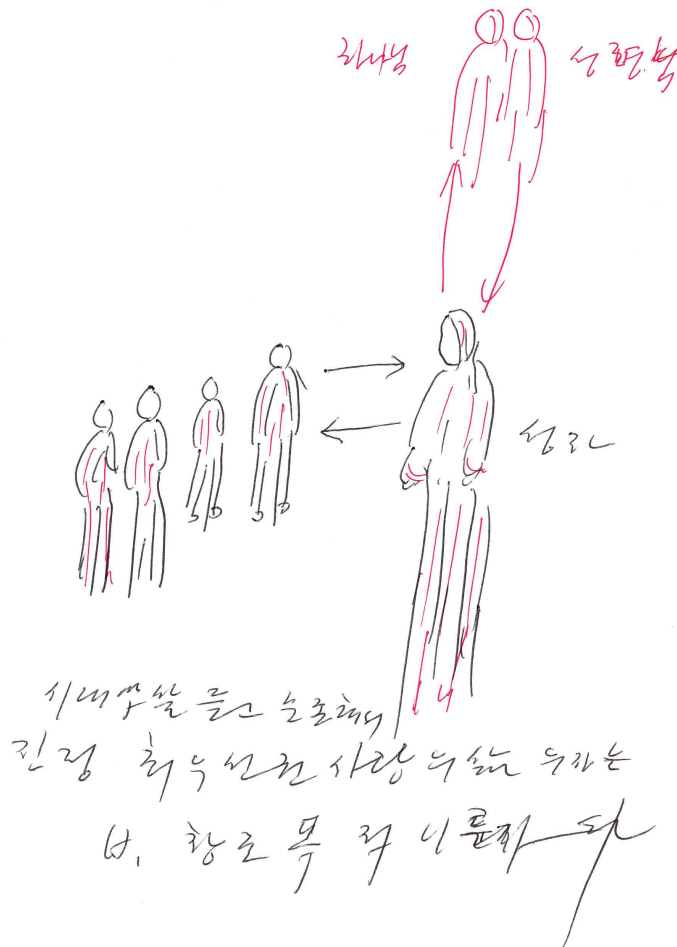
(*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상9>

★ 월명동 호수같이 바닥의 물을 싹 빼고 썩은 흙을 다 파내고 바다를 깨끗이 한 다음에 자갈을 깔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듯이, 너희 영을 휴거시키기 위해 그동안 지은 죄를 근본적으로 깨끗이 회개하고, 너희 육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모두 깨끗이 회개하여라.

★ 그리고 나 성자가 보낸 자를 먼저 맞고 믿고, 그를 통해 나 성자를 사랑으로 맞아라. 땅에서 먼저 육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영도 창조 목적을 이룬다. 최우선으로 창조자를 사랑하며, 그가 보낸 나 성자를 사랑하며, 나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의 말을 믿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악평의 말도 믿지 말아라.

★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며 깨끗한 신부가 되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라. 그 육과 영은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 인류를 책임지고 구원하러 온 나 성자의 신부가 되어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된다.



★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믿고 있다. 자녀급 차원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기에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 지금은 신부급 차원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사는 때이고, 이제 예비된 영들이 영 휴거 직전에 있다.

시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진정으로 하늘 최우선의 사랑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다.

너희에게 삼위일체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가르쳐 준 성자니라. 샬롬! (성자의 모습) <영상9 끝>

<축 도>

지금은 사랑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천지와 인간의 창조 목적의 뜻을 전해 주시어 우리를 신부로 변화시키시는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창조 목적을 깨닫고 몸도 마음도 사랑도 창조 목적을 위해 쓰고자 결심하며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